

## 7장 속건제와 화목제

### 1. 속건제 (7:1-10)

#### 1) 속건제의 규례 (7:1-5)

속건제도 속죄제처럼 그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제의 희생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 부위와 콩팥을 태워서 여호와께 화제(음식 제사로 드렸다).

#### 2) 속건제와 다른 제사의 음식 (7:6-10)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였다. 속죄제의 고기 중에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은 것처럼(6:26, 29), 속건제의 고기도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7:6-7).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 부분에서는 속건제의 음식을 다루면서 속죄제나 소제의 음식에 대한 것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음식을 분배하는 데에서 약간의 구별이 있다. 번제의 경우는 음식이 없으나 그 동물의 가죽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렸다. 소제물 중에서도 요리한 것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렸으나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소제물은 아론의 모든 자손이 고루 분배하도록 하였다(7:10).

### 2. 화목제 (7:11-36)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라고도 불린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피는 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주요 부위의 기름을 콩팥 함께 하나님께 드린 후에 고기를 제사장과 제사자가 나누어서 먹었고, 자기 가족과 노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초청하여서 함께 화목제를 나누었다(신 12:11-12; 16:14-15).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낙헌제’의 세 가지고, 경우에 따라 고기를 먹는 기간도 달랐다.

#### 1) 화목제의 종류

##### (1)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7:11-15)

화목제에는 구원을 얻은 후에 드리는 감사제에서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를 섞어서 구운 과자를 감사제의 희생과 함께 드렸다.

유교병을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단에 올리지 않고 하나씩 거제로 드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려주었다. 거제(擧祭)는 위로 들어 올리는 제사인데, 제물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드렸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었다.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로 다 먹도록 규정하였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고기를 다 먹어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청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나누었다.

##### (2)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 (7:16-18)

하나님께 서원을 한 후에 그것을 이행하면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가 있다. 서원제와 자원제의 음식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 만일 3일째 되는 날에도 희생의 고기가 남았으면 불사르도록 하였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제사가 열납되지 못하고 그 예물이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었다.

#### 2)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할 부분

##### (1) 먹을 수 있는 사람 (7:19-21)

화목제의 희생은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다.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 (2) 기름과 피에 대한 금지 명령 (7:22-27)

화목제 음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모두 돌리라고 말한 기름은 먹지 않아야 하였고 또한 생명의 상징인 피도 먹지 않아야 하였다(레 17:10).

## 3) 제사장의 분깃 (7:28-36)

화목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은 단 위에서 태우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렸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요제’로 드리고 그 고기를 받았다.

또한 오른편 뒷다리를 아론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었고, 제사장은 그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 3. 요약 (7:35-38)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음식 제사)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을 정하였다. 위임제에 관한 것은 8-9장에서 나온다.

**묵상과 실천:****성경의 제사와 백성의 참여, 사람들 사이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1. 성경의 제사와 백성의 참여**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그들도 동물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었다. 제사보다 젓밥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그러한 현실을 잘 표현한다.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그 당시의 제사 제도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제사 제도를 사용하여 대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첫째, 제물의 피를 먹지 않고 성막을 향해 뿌리거나 분향단이나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또한 제단 아래에 다 쏟게 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피를 마시는 예식이 있었으나 성경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피로써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다른 나라의 제사 제도는 다산 의식과 관련되어 있어서 오히려 음란한 죄를 많이 지었으나 구약에서는 속죄를 가르쳤다.

둘째, 제사에 대한 규례를 백성 모두에게 알려주셨다. 이교에서는 제사장 집단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장래를 점치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 그 간을 ‘읽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백성이 제물로 쓸 동물을 죽였고(1:5 등)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였다. 정결한 짐승을 가져오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였다.

**2. 사람 사이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

속건제는 화목제와 비슷한 점이 있다. 속죄제는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거나 단 아래에 쏟았지만 속건제는 단 사면에 뿌렸는데, 피에 관한 이 부분은 화목제와 동일하다(3:2, 8, 13). 기름 부위와 콩판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도 화목제와 동일하다(3:3-4; 4:9-10). 속건제가 화목제와 비슷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화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게 하였고, 그 제사의 과정을 화목제와 비슷하게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사람과도 화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사람에게 입힌 해악은 고려하지 않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마 5:23-24).

## 7장 익힘 문제

### 1.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 1) 속건 제물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2절)
- 2) 그 피는 어디에 뿌릅니까? (2절)
- 3) 번제를 드린 제사장은 무엇을 얻습니까? (8절)
- 4) 기름과 콩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5절)

### 2. 화목제 희생의 규례입니다.

- 1)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언제 먹습니까? (15절)
- 2)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음식이 제 삶일까지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16, 17절)

###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라게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은 경우 (20절)
- 부정한 것을 만지고 여호라게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은 경우 (21절)
- 희생제물의 기름이나 생명의 상징인 피를 마시는 자 (25-27절)

### 4. 화목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물의 무엇과 무엇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까? (30절)

### 5. 화목제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이 요제로 삼은 다음 취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30, 31절)

### 6. 화목제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이 거제로 삼은 다음 취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32, 33절)